한전, 국민 눈높이 맞는 전력망 구축

작년 72건 송·변전 준공…전력구입비 8천500억원 절감
완도-동제주 HVDC 건설 등…kWh당 1.6원 요금인상 해소

한국전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최장기 프로젝트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을 포함해 총 72건의 송·변전 건설 사업을 준공했다.

한전이 지난해 준공한 사업은 345㎸(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아시아 최대 규모인 978㎿(메가와트) 계통안정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완도-동제주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건설 등이다.

이 같은 전력망 건설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천500억원의 전력 구입 비용이 절감돼 ㎾h(킬로와트시)당 1.6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장기(총 21년 소요) 건설 프로젝트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준공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을 해소하고 연간 3천500억원의 전력 구입비가 절감될 뿐만아니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과 아산 일대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예산, 경남 부북 등 전국적으로 총 978㎿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통안정화용 ESS도 구축됐다.

이밖에 완도-동제주 HVDC 건설 사업 준공은 제주 지역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도가 높아져 동해안 및 서해안의 발전제약을 해결하고 연간 5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혁신·협력 '광주형일자리 인증' 동판식

광주일자리재단, 디에이치글로벌·씨엠텍 등 4곳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2일 "전남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인증' 동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판식에는 새롭게 광주형일자리에 인증된 선도기업 ㈜디에이치글로벌, ㈜씨엠텍과 예비선도기업 ㈜화인씨앤에스, 동진기업㈜이 참여했다.(사진)

동판식은 광주형일자리 시즌 2의 상징성을 담은 새로운 현판 공개를 통해 노사 상생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형일자리 시즌 2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첨단산업,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해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다각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새로운 현판은 광주형일자리 시즌 2가 추구하는 혁신과 협력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이번 시즌2에서는 AI,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확대하고 광주가 미래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솔 기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23-27일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해도 된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연합뉴스

설 앞두고 과일값 '강세'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오른 가운데 22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일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김영근 기자

GICON, GCC사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내달 4일·13일 서울·광주서…게임 등 4개 분야 140명 모집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2일 "다음달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와 2월13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GCC사관학교 2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으로 오는 3월17일부터 2기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GCC사관학교 2기 개강에 앞서 예비 교육생을 대상으로 GCC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서울 설명회에서는 인기 웹툰 '조선왕조실톡'의 작가 '무적핑크'가 광주 설명회에서는 인기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작가 '이종범'과 이성호 실감콘텐츠 디자인기업 디스트릭트홀딩스 대표가 명사로 초청돼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18세-만39세 이하 140명으로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https://gcca.kr)을 통해 2월24일까지 모집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2기 교육생은 차별화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화순 키즈라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직업 탐색 양질 기회 제공…2027년까지 3년간 인증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22일 화순 키즈라라에 따르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교육부가 지정한다.

키즈라라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전남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화순지역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키즈라라는 2027년까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문팔갑 대표이사는 "키즈라라 어린이직업체험관은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 통찰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라라 직업체험관 이용을 원할 경우 교육부의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또는 키즈라라 고객지원센터(1600-7953)로 신청하면 된다.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보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